



ERZBISTUM
HAMBURG

사목교서
대교구 교구장이신
박사 스테판 헤세 주교님의
2022년 안스카 축제를 기념하며



사목교서 대교구 교구장이신 박사 스테판 헤세 주교님의 2022년 안스카 축제를 기념하며

함부르크 대교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그리고 몇 달 간 저희 함부르크 대교구의 위원회와 여러 그룹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지난 몇 달 간의 일을 되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희들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 습니다. 저는 이처럼 속 깊은 만남에 대해서도, 영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퀼른 대교구에서 있었던 성적인 남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저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의 많은 분들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심을 잃어버렸으며, 더군다나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체념의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몇몇 분들의 분노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아 뜨게 합니다, 그것은 실수였으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책 임을 통감합니다.

지금은 독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도 위협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개혁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저희 함부르크 대교구 안에서도. 거기다 코로 나 바이러스로 인한 도전들도 있습니다. 이 도전들은 우리 모두를 힘겹게 하고 있고 동 시에 다시 한 번 더 변화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주교직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황님의 결정과,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 도전이 었던 수많은 대화들은 대주교로서의 저의 책임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업무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과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는 안 되는 숙제들을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떠들썩한 격변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는 분명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호소나 기회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 스스로 지난 몇 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러한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주제 영역 들과 과제들이 저에게는 맞대응해야 할 과업들입니다.

방지, 개입 그리고 처리

성적인 남용에 대한 방지는 전문적인 처치에 대한 중요한 기초입니다 - 성폭력에 희생 된 사람들과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잘 배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처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함부르크 대교구의 모든 교구 직원들과 자원봉사 형제자매님들은 성적인 폭력에 대한 주제를 가진 방지교육에 참여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의 성범죄 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대교구 내에서 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함부르크 대교구 내 모든 본당들과 교회적 조직들은 희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늦어도 2022년 10월 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점진적 과정은 거기에 걸 맞는 시간 계획에 따라 수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필요한 변화의 과정은 모두에게 공포될 예정이고 자주 미리 시작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조직들은 이미 2021년에 그들의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보호 프로그램은 항상 주교님의 방문 때 살펴보게 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오스나브뤼크 교구와 힐데스하임 교구와의 협력을 통해 희생자들을 위한 위원회와 개입을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클렌스부르크 지역 처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 대교구를 위해서 성적인 남용에 대한 처리를 도와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성적인 남용에 대한 모든 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들과 과정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대교구 안에서 이 미 몇 개의 든든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다시 엄밀히 조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한 뚜렷한 진행 과정 등을 결정한 일이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남용의 모든 형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덧붙여 독일 주교회의의 동의 하에 나온 몇 가지 기준들에 주목하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대교구 안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방지, 개입 그리고 처리에 관한 영역에서 투명하고 공격적인 과정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해마다 광범위한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 입니다.

저에게는 명백한 일입니다 - 희생자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준 모든 것들을 이유로 : 어떠한 조치들과 어떠한 노력들도 희생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을 계획입니다.

봉사하는 교회 -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북독일에서 사람들, 그분들 삶의 기복에 함께 하려고 나아갑니다. 대주교로써 저는 지금까지의 시선보다 더 강하게 시선을 힘없는 사람들,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향하게 할 것이며 그분들 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복지 시설들의 사람들을 만 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다음 질문을 항상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루카 18,41)

저는 우리 교회를 봉사하는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톨릭 사회복지(카리타 스)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저는 당연히 개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톨릭 사회복지회의 활동을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가톨릭 사회복지(카리타스)입니다.

카리타스적 실천은 저에게 존재론적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 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교구와 본당들의 사목에서 카리타스(가톨릭 사회복지)는 늘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걸음으로 저는 지금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하며 함께 강하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교회 - 우리의 협력 안에서의 문화

모든 사회적 영역에는 그들의ダイナミック한 힘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 힘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두거나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특별히 그나 혹은 그녀가 어떤 지위에 있거나 계층적 구조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권력이 남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함부르크 대교구 내에서는 “눈높이” 원칙이 통용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원봉사들 이나 업무 종사자들, 사제나 평신도, 협력자들이나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이나 모두 자신 이 지니고 있는 권위가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당 연히 모든 주교님들을 포함한 저에게도 유효한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이에 존재 하는 정당한 구별에 관한 표지는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써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만남 안에서의 교회”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 달 간의 대화들에서 저는 또한 그러한 점들을 아프도록 다르게 경험한 사람들의 수많은 상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는 교회의 관점에서 다섯 개의 구체적인 지침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몇 달 간 함부르크 대교구에서는 고충 처리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 배치는 1분기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신뢰적이고 명백한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저희 교구 내 교구적 위원회 활동의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참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시노드적인 교회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원회를 보류시키고, 교구 사목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에 포함시킬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참사위원회는 무기한 중단한 채 그 대신 같은 권위를 지닌 그룹들을 통해 정해진 테마 안에서 연구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구 내 인사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할 것입니다. 피드백 문화의 개선은 인사 업무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피드백 문화가 두 방향에서 개선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도구는 신뢰적인 동반 업무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여성들의 직업적 요구를 위한 프로 그램이 함부르크 대교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과에서는 업무를 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표준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저 역시 스스로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열린 디지털 대화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대 교구의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열린 주교관의 날”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저희 교구 내 모든 본당들을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향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선교적으로 나아감”이라는 주제 아래 사람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요구 했습니다. 이 주제는 다른 사목적 영역들 안에서 실험적인 배치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전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1분기에 참여적이고 실천하는 프로젝트 그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목적서의 끝에 즈음하여 저는 저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원천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파괴된 도시였습니다. 성전에서 의 제례는 다시 이어졌으며 신앙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에즈라 예언자는 자신의 예 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느헤 8,10)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기쁨이 각인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강하고, 빛을 밝힐 것이며, 무언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쁨을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실천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성당 안에서 명상 과 묵상 그리고 관상,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침묵의 기도를 위한 보다 많은 기도방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체성사와 더불어 전례의 형태와 선포의 방식을 다양하게 되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도 기꺼이 대주교로서 함께 참여할 것이고 예식의 주관자로서가 아니라 신자분들과 더불어 늘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저녁, 그 시작은 재의 수요일 저녁에, 주교좌성당에서 19시부터 21시 사이에 가지게 될 침묵의 성체조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다가오게 될 주일미사 텍스트에 관한 훈화를 형제자매님들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 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성무일도 끝기도로 이 시간을 마칠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은 무거운 분위기 안에서 기도는 강한 호흡, 숨을 내쉬지 않으면 공기를 내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호흡 같은 느낌을 줄 것입니다.

이 서한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입니다: 함부르크 대교구 내에서의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 도 전에 맞설 것이며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가장 소중한 축복의 인사와 더불어 저는 늘 여러분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주교 스테판 헤세 박사.



ERZBISTUM
HAMBURG

함부르크 대교구
암 마리엔동 4
20099 함부르크
www.erzbistum-hamburg.de